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나지완, 김현수 사과에 "됐다"

4일 오후 광주 무등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 앞서 전날 벤치클리어링을 야기한 KIA의 나지완(오른쪽)과 두산의 프록터(왼쪽)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두산전 벤치 클리어링 감정싸움 앙금
후배 모욕적인 말에 상처 마음 못 열어

"됐다."

신일중·고 선후배인 KIA 나지완과 두산 김현수의 대면은 그렇게 끝났다.

KIA와 두산의 경기를 앞둔 4일 무등경기장 덕아웃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다. 3일 양팀은 KIA의 마지막 공격이 펼쳐지던 9회말 벤치 클리어링을 하며 감정 싸움을 했다.

두산 마무리 프록터가 2사에서 대타 나지완에게 던진 초구가 사건의 발단이 됐다. 프록터가 던진 공이 머리쪽을 향했고 황급히 몸을 피한 나지완이 불편한 심기를 노출하면서 그라운드에 선수들이 뒤엉켰다. 나지완은 앞선 프록터와의 승부에서 '홈런 세러모니 헤프닝'을 연출한 적이 있어서 위협구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이내 경기가 재개됐지만 감정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볼넷에 이어 조영훈의 안타로 2루에 출루한 나지완과 두산 좌익수 김현수의 말싸움이 전개되면서 이상기류가 흘렀다. 벤치 클리어링 과정과 외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김현수의 불편한 시선이 계속되자 나지완이 '선배를 왜 그렇게 보느냐'고 한소리를 했고, 이에 김현수가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일이 커졌다.

경기는 차일목의 헛스윙 삼진으로 4-5 KIA의 역전패.

사건의 중심에 섰던 나지완은 경기가 끝난 후 속상한 마음에 꼬박 밤을 샜다. 팀의 패배와 함께 예의를 벗어난 신일중·고 2년 후배인 김현수의 행동, 프록터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이날 중계 화면에 잡힌 프록터의 입모양이 논란이 됐다. 나지완을 향해 'Yellow pig'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유색인종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다.

나지완은 이에 대해 4일 프록터에게 항의를 했고, 두산 측의 해명으로 이 논란은 일단락됐다.

두산은 "프록터가 최근 2사 후에 안타를 많이 맞아서 니퍼트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소리를 쳐주라고 부탁을 했었다"면서 "두산 덕아웃을 향해 'Yell it me Nip(니퍼트 애칭)'이라고 말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후배 김현수에 대한 앙금은 풀지 못했다.

나지완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일중·고에서 함께 야구를 했던 후배다.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한숨도 못 잤다"면서 복잡한 심경을 밝혔다.

경기가 끝난 후 김현수가 나지완에게 전화를 걸었고, 4일 KIA의 배팅 훈련이 끝나고 다시 한번 사과를 했지만 굳게 닫힌 선배 나지완의 마음을 열지는 못했다.

KIA 선수단도 후배의 철없는 행동에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팬들의 시선도 곱지 못했다. 3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전한 김현수는 KIA 팬들의 야유 속에 타석에 서야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생활체육 어르신 축제

오늘 광주 염주체육관 … 60세이상 5000여명 참가

제7회 광주시장기 생활체육 어르신 축제가 5일 염주체육관에서 열린다.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마련된 이번 축제는 5개 구생활체육회와 대한노인회광주시연합회가 주관하고 광주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며 60세이상 5000여명의 어르신이 참가한다.

행사는 체육마당과, 화합마당, 문화마당으로 나눠 진행된다.

체육마당에서는 단체훌라후프, 공굴리기, 대형 윷놀이 등 종목의 자치구별 경합이 벌어지며, 레크리에이션과 춤과 노래실력을 뽐낼 수 있는 화합마당의 시간이 펼쳐진다. 트로트 및 민요 등 지역가수를 초청해 즐거운 문화마당의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축제는 구별 입장식 퍼레이드와 함께 오전 10시 시작되며 건강관리협회에서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을 체크하는 노인건강검진을 위한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연경 vs 흥국생명

여자배구 최고의 거포 김연경(24) 해외 임대 문제를 앞두고 시끄럽다. 김연경측과 소속구단인 흥국생명간의 갈등이 연맹과 에이전트까지 가세 복잡해지면서 자칫 진흙탕싸움으로 번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자배구 최고 거포
해외 임대 이전투구
○○○○○
에이전트 인정 쟁점
이적 동의서도 논란

◇흥국생명 "에이전트는 빠져라" = 일본 JT 마블러스에서 두 시즌을 뛰고 지난 시즌 터키 페네르바체로 이적한 김연경은 현지에서 겪는 애로를 해결하고자 터키에 지사를 둔 인스포코리아와 에이전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은 '연맹 또는 구단과 협의하지 않은 제3자와의 배구 또는 타 스포츠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 및 경기의 참가는 금지된다'라는 한국배구연맹(KOVO)의 규정을 들어 인스포코리아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세다.

흥국생명의 한 관계자는 4일 "김연경은 엄연한 우리 소속 선수인데 계약할 때 제3자인 에이전시를 끼고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은 에이전트 없이 김연경이 뛰고 싶은 팀을 직접 물색해 온다면 해당 구단의 성적, 조건 등을 따져 보내주겠다고 한다.

이에 맞서 인스포코리아는 국제배구연맹(FIVB)의 규칙을 들어 흥국생명을 배제하고 직접 움직일 태세다.

◇다년 계약 vs 1년 계약 = 일본과 터키리그를 평정하고 세계적인 공격수로 떠오른 김연경은 앞으로 4~5년은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기를 바라고 있다.

인스포코리아는 부상 등 다양한 변수가 등장하는 스포츠의 특성상 선수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중요하다며 해외 구단과의 다년 계약을 추진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임대 구단 선택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흥국생명은 "1년 단위로 계속 임대 계약을 하면 된다"고 맞섰다.

◇이적동의서 발급 절차에 대한 이견 = 인스포코리아는 김연경과 흥국생명의 계약이 지난달 30일 종료되면서 김연경이 해외에서는 FA 신분을 얻었다며 대한배구협회에 ITC 발급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FIVB의 '국제룰'은 해외 구단과 선수가 속한 해당 나라의 배구협회의 승인을 받으면 ITC를 발급한다.

그러나 나라마다 '로컬룰'은 약간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프로 구단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배구협회에서 승인해준다. 결국 흥국생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김연경의 이적은 이뤄지지 않는다.

인스포코리아측은 FIVB의 '국제룰'이 상위규정이므로 독자적인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면 흥국생명과 연맹은 FIVB가 '로컬룰'을 중시하는 추세라며 이를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배터리 전략부재 … 안타까운 SUN

〈투수와 포수를 묶어서 이르는 말〉

베테랑 포수의 노련함과 젊은 마운드의 패기가 KIA 순위 싸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진은 KIA 신인 투수 박지훈(왼쪽)과 안방마님 김상훈. 〈KIA 타이거즈 제공〉

신인 투수들에 노련한 포수 리드 아쉬워
꼼꼼한 배터리 야구가 KIA 성적 좌우

"가장 아쉬운 경기였다."

KIA 타이거즈 선동열 감독에게도 아쉬운 패배였다. KIA는 3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선발 서재응의 6과3분의1이닝 1실점 호투에도 불구하고 4-5 역전패를 기록했다.

불펜의 난조로 3-0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귀중한 1승을 내줬기 때문이다. 7회초 1사2루에서 필승조 박지훈이 투입됐지만 고영민·허경민의 연속안타, 이종욱의 볼넷에 이어 정수빈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으면서 3-3.

8회 박경태·유동훈의 계투 작전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KIA는 승리를 놓쳤다.

선 감독은 "순위 싸움이 치열해지면 2승 이상 가치가 있을 아쉬운 승이었다. 결과적으로 실패가 됐다. 섭섭했던 경기가 됐다"고 밝혔다.

선 감독의 아쉬움은 '배터리의 전략'이었다.

어렵게 승부를 가져가지 못했다는 점이 선 감독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선 감독은 "박지훈이 신인이라서 스스로 경기를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포수가 리드 자체를 어렵게 승부를 갔어야 했다"며 "승부를 하기 위해서는 보여주는 공을 던져야 한다. 그렇지 못했다. 아무리 좋은 볼이라도 같은 볼을 연달아 던지며 타자 눈에 익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원하는 전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선 감독은 "배터리에겐 공부가 많이 됐을 것이다"며 아쉬움을 달랬다.

선 감독이 강조하는 '배터리 전략'은 앞으로 KIA 순위싸움의 주요 변수다.

KIA 마운드에 신인 박지훈·홍성민 등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배터리의 호흡과 포수 리드가 전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상으로 마운드가 완벽하게 꾸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배터리의 역할이 강조된다.

지난해 필승 불펜으로 활약했던 좌완 심동섭과 마무리 한기주가 재활중이고, 4일에는 선발진에서 활약했던 김진우가 팔꿈치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유동훈도 기복이 계속되면서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꼼꼼하고 세밀한 배터리 야구가 7월 KIA 순위싸움의 관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윤철 프로골프협회장 사퇴

"협회 내분으로 힘들어"

지난 3월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수장에 취임했던 전윤철 회장이 사퇴했다.

전 회장은 4일 "한국프로골프의 발전을 위해 협회장을 맡았지만 협회가 내분에 쌓여 더 이상 협회장직을 맡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감사원장을 지낸 전 회장은 3월29일 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제15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이 회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지난 5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전 회장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KPGA는 지난해 12월 박삼구 전 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뒤 새로운 회장을 뽑는 과정에서 회원들이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연합뉴스